

■李 대통령, 27일 중국 국빈 방문

# 李대통령 “쇠고기, 국민과 소통 부족” 시인

### 국무회의 “정책 집행, 소통 원활하게 하는게 최우선 과제” “물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철저히 통제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한·미 쇠고기 협상 파문과 관련,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이 얼마나 국민의 관심사인 것을 알게 됐다”며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에 관한 문제는 정부가 사전 사후에 국민과 완벽하게 소통해야 하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식품 안전이 국민의 절대적 관심사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각 분야의 정책 집행에 있어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쇠고기 협상을 전후해 정확한 실상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추후 중대 사안에 대해 여론 수렴을 적극 해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 대통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대해 “FTA는 분야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서 “오늘 (국회에) 상정돼 통과 되도록 장관들이 적극 협력해야 하며 농수산식품부 차원에서는 여러 사안에 대해 국민에게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물가 급상승 추세에 대해 “정부가 물가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유가와 곡물가 상승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요인도 많이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정부가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해야하고 물류 및 유통과정 등에서 물가상승 요인이 있는 것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며 “원가 자체가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사제기 같은 것은 다른 조치에 의한 물가 상승은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당장 서민들이 살아가는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김중수 경제수석으로부터 쇠고기 문제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있다. 왼쪽은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 /연합뉴스

데 불편을 주는 민생에 관련된 규제 개혁이나 법을 우선적으로 풀어서 국민생활의 불편을 덜어주는 생각에서 이달 말까지 종결지어 곧 발표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지시했다.

AI(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 이 대통령은 “AI가 대도시에서 확산되고 있어 국민이 매우 걱정스러워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들도 힘을 모아서 철저한 예방과 사후조치,

특히 유통단계에 관심을 가질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2의 조직개편은 지자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력을 하는 것이 좋다”면서 “중앙과 지방이 기능 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미래지향 한중관계 기틀 마련

### 미·일 순방 이은 '4강 외교' ...경제·통상 실질협력 논의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3박4일간 중국 베이징과 칭다오를 방문,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 회담을 갖고 전략적 관계로의 격상 등 양국간 현안을 논의한다. 지난달 중순 미국, 일본 순방에 이은 '4강(靑) 외교'의 일환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한중관계 발전, 경제·통상분야 실질협력 확대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새 정부가 한미관계를 최우선시 하면서 상대적으로 한·중관계가 소외해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터라 이번 중국 방문이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는 게 청와대 참모들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중국 방문을 통해 지난 92년 수교 이래 확대발전해 온 양국간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일환으로 이 대통령은 방중 첫날인 27일로 예정된 후진타오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서물외교 활성화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일본과 합의한 바 있는 서물외교는 한·중 두 정상이 현안이 있을 때마다 당일이나 1박2일의 짧은 일정으로 편하게 양국을 방문해 허심탄회하게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양국 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외교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중국도 한국과의 관계 발전 및 서물외교 구상에 상당히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양국간 끈끈한 관계를 토대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및 안정을 공고화하기 위한 조치에도 의견을 같이 할 예정이다.

특히 핵심인 문제를 둘러싼 북미 양자간 대화 진전으로 북핵문제 해결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다지는 계기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을 포기하면 10년 안에 북한의 국민소득을 3천 달러로 만들겠다는 자신의 '비핵·개방·3천구상' 등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중국 측에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지도 이끌어 낼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북한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치·외교 사안 못지 않게 경제·통상분야의 실질협력 기반을 다지는 것도 이번 방문의 주요 목표중 하나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칭다오(靑島)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상징성을 띠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베이징(北京) 기초과학시설 방문 및 한중 경제인 주최 오찬 연설, 칭다오 지역 기업 시찰 등 주요 일정 중 절반이 '경제'로 채워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산둥성(山東省) 지도자들을 만나서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 국민과 투자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직접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하는 문제 역시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새 정부는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에 걸맞게 '국제외교', '기여외교'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서는 주변 강국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 정보 정확해야 지지해줄 수 있어”

## “쇠고기 고시 연기 농림부와 협조”

### 한나라 이한구 정책위의장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13일 정부가 미국 정부의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를 잘못 파악하는 등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 “정부가 주는 정보가 정확해야만 우리가 지지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국민의 신뢰감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정보의 정확성이라는) 그게 무너져버리면 스토리(이야기)가 달라져 버

린다”면서 “이를 위해 오늘 정부 담당자들을 불러 그동안 정부가 우리한테 줬던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다시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이 그동안 우리가 보고받던 것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오늘 그 진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일부 언론에 보도된 장관 고시의 연기 방침에 대해서는 “아직 그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13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의 연기를 요구하는 야당 일각의 주장과 관련, “오늘 청문회의 내용을 갖고 주무부서인 농림부장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주최한 한미 FTA 청문회에 출석, ‘15일로 예정된 장관 고시를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동당 권영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유 장관은 이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을 중단한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을 수용한 것과 관련, “공개적으로 발표한 신사업장이어서 지켜질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협정문에 명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미국의 동물성사료 금지 조치’와 관련, “광우병 양성 판정이 난 소를 사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신실된 조항으로 강화된 조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년 공무원시험 상한 응시연령제한 폐지로 공무원 시험 열풍! 귀하를 광주 "한빛고시학원"에서 합격의 책임을 책임지겠습니다.

## 9급 공무원시험 [지방직] 합격! 최강퍼펙트강좌

www.hanbitgosi.co.kr  
들어오시면 전국최고의 시설과 최다합격자 최강의 강사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론반	문제풀이	면접개설	이론 짝수반	서울시 문제풀이	법원 점찍	소방 기출	농업직
2개월 완성	2개월 완성(이론+문제)	2개월 완성	2개월 완성	4주완성	2개월 완성	2개월 완성	농림수산부 공무원시험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 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www.hanbitgosi.co.kr  
www.hanbitgosi.co.kr  
www.hanbitgosi.co.kr  
www.hanbitgosi.co.kr  
www.hanbitgosi.co.kr  
www.hanbitgosi.co.kr  
www.hanbitgosi.co.kr  
www.hanbitgosi.co.kr

**생할안내 광고**

저렴한 광고비 뛰어난 광고 효과!

광고접수 및 문의 직통전화: 227-9600 FAX: 227-9500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529-811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한국경제TV · 부동산TV강사진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현대원 남 48세 최영아 여 31세)

개강 매월 초 주야 합격 (첫진도 시작반)

●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 33개 학원체인)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 1위 ● 선배합격자분들이 추천한 1등학원 ●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합격률 1위 전국수석합격 **새롭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 361-8111 동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바로 옆 도영빌딩 북구점 ☎ 529-8111 계림동 구시청사거리(중흥동)대안빌딩 옆 영충빌딩 6층

= 합격률 전국 1위 =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재직자 수강지원과정 수강료 50% 환급과정 현재상담접수중

- ♣ 현대적 학습시설
- ♣ 첨단학습보조 시스템
- ♣ 과학적 평가시스템
- ♣ 창업 및 취업 센터 운영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 건너편) 236-2467~8 고객무료전화 080-0236-2468

= 정부는 올해안에 소방공무원 2,228명을 충원할 예정이다 (성황리 강의중) =

## 9급 공무원 완전 대비

행정직	교정직	세관직	관세직	감사직	법원직	경찰직	교정직	보통직	소방직	전차직	특수직	특수직	군종직	보통직
-----	-----	-----	-----	-----	-----	-----	-----	-----	-----	-----	-----	-----	-----	-----

※ 보건의직 전남23명, 전북16명 9월27일, 경기56명 8월2일, 서울29명 (셀강중) ※

금년 중·하반기 시험 개강 5월 15일(주·아·모) (현재예약접수중)

합격수강 회원모집  
6개월 (총)회원 80만원  
1년 (총)회원 120만원  
합격시까지 170만원

= 감(感)이 좋은 학원! 『無等』을 찾아주세요!! =

考試의 名門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 222-4560 www.mdgoal.co.kr